

선교 소식



2018년 성경캠프

“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 (마 9:36)

메리땡 개척교회 소식

: 메리땡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시고 세워 주시고 있습니다. 피나르(Pienaar) 라는 청년은 이스턴 케이프(Eastern Cape) 에서 천킬로 떨어진 저희 마을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온 청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역에 소망을 가진 청년입니다. 비록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무관요 신학교 1학년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 시키시고 주의 일꾼 삼으실것을 생각하면 감사하합니다.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 시키시는 일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더욱이 감사한것은 한 교회에서 (당분간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기에 이름은 생략합니다.) 선교지 현지 아이들에게 7월부터 장학금을 주게 된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 한다면 이렇게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어서 함께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육은 5년지 대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10년지 대계인것 같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변함없이 꾸준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양육시켜 나갈때 하나님의 일꾼이 성장하고 양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6일은 남아공 어머니의 날 (Mother's Day) 였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2일간 마더스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현대화된 남아공 이지만 아직 현지인들은 전통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로볼라 (Lobola)-신부값 '이 있어서 신랑은 신부값을 주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는 늘 약자 입니다. 2일간의 컨퍼런스 로 이들을 위로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가정을 회복하

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독교 문화 운동이 남아공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적 받침이 없는 선교 현장은 복음 역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 운동은 또 다른 영역에서의 선교입니다.

올해 에도 겨울 성경학교 를 가졌습니다. 6월 26일 에서 28일간 메리땡 교회와 러스턴버그 개혁교회 영어 예배 그리고 보이띠공 교회 3곳에서 가졌습니다. 요하네스버그의 은혜로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와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약 250여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들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중고등부가 되어서 섬기기도 하고, 작년과는 다르게 좀더 성숙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각 교회별로 8명 내외의 아이들이 파송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각 반별로 나누어 아이들을 돌보는데 더 이상 중고등부 혹은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교사이고 선교사들이였습니다. 올해 처음 참석한 한인 아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 왔었는데 나중 고백하기는 남아공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보람된 시간 이었다고 고백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종이 같아서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는가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놀라움을 경험하면 이들은 아마 보다 넓고 큰 하나님 나라를 그려 나갈것이라 믿습니다.

개혁교회 소식

: 영어 예배 봉사자 가운데 패트릭 (Petric) 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남아공 한참 겨울인 지난 7월에는 케이프타운 (Cape Town)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약 1600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나서는 더반 (Durban) 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 갔다 왔습니다. 이것 역시 약 1000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겨울 케이프타운 가까운 언덕에서는 보라를 만나서 도무지 앞으로 갈수 없었는데 옆 농장 주가 철곳을 내 주어서 어려움을 지나기도 했다고 돌아 와서 간증을 쏟아 놓습

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차는 멈춰서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주기도 하고, 또는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고 가기도 합니다. 패트릭은 참 열심히입니다. 광부로 백금광에서 일할때에는 교회에 누구보다도 헌신을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실직한후 조금 떨어진 농장에 살면서 하나님께 향한 나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언제나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영어 예배 봉사자들은 각자가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큼 주님께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사랑이 주님께 온전히 드러지기를 기도합니다.

신학교 소식

: 새로운 학생이 들어 왔습니다. 이름은 에드모어 (Admore) 입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Zimbabwe) 사람입니다. 짐바브웨는 남아공의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군부 독재 정권 아래에서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였던 시기에는 대 농장들이 있어서 담배 등 온갖 농산물이 넘쳐 흘렀던 나라입니다. 한때는 짐바브웨 농사로 아프리카 대륙을 먹여 살릴수 있다 말할 정도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자급자족도 할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권이 바뀌어서 조그마한 희망을 가져 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해 보면 못사는 나라일수록 선교사가 필요하고 또 선교를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수 있고 또 잘 혹은 쉽게 될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 선교사들이 있지만 많이 없습니다. 사역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첫째로 꼽히는 이유는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의 2배 이상을 주어도 남아공 보다 형편없는 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에는 외국인 이기에 가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거비와 생활비가 남아공 보다 2배 이상 들기 때문에 제한된 사역비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남아공 주변의 모잠비크, 레소토, 스와질랜드 등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오는 사역자들을 볼때면 눈이 반짝 뜨입니다. 선교사가 직접 선교 하기에는 힘든 곳이지만 이들을 함께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입니다만 이웃 나라의 모잠비크에서 온 사역자와 함께 모잠비크 교회 개척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3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입생으로 들어온 에드모어를 주목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남아공 알아가기...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1. 아파르트헤이트가 무엇입니까?

:아파르트헤이트 (아프리카어: Apartheid) 는 인종 차별 정책이란 아프리카어입니다. 먼저 아프리카어 라 함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옛 화란 (네덜란드) 어 를 말합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이주하여 정착하여서 이들의 언어를 아프리카스 라고 부릅니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는 남아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할 단어 입니다. 남아 공은 인종 차별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1994년 4월 까지 유지 되어 오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백인, 흑인, 컬러 드, 인도인 등으로 나누어서 거주지, 결혼, 교육, 통행 조차도 제한을 두는 법입니다. "차별이 아닌 분리에 의한 발전" 이라는 미명아래에서 백인 지상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법 이었습니다. 이 법의 시작은 1917년 안 크리스치안 슈미츠 의 연설에 서 처음 등장 하지만 이것은 영국 식민지 정부가 나탈 과 케이 프 식민지에서 실시 하셨던 통행법 (Pass Law) 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가 지고 나면 원주민들은 정착민 마을 을 통행할수 없도록 한 법 이었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 되었는데 대 (大)아파르트헤이트 와 소(小)아파르트헤이트 입니다. 먼저 대아파르트헤이트는 정치적 분할 입니다. 반투 자치법을 만들어서 반 투스탄 이라는 불모지에 원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 자치권을 주면서 외국인으로 간주 하여 남아공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을 남아공 의 외국인 노동자로 직장을 주면서 노동력 을 공급 받았습니다. 1976년 4개의 흑랜드

(트란스케이, 벤다, 보푸타쯔와나, 시스케이)를 만들어서 정치적 분할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명목상으로 흑인 자치권을 허용한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아공 백인 정권의 정치안에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소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 분리 정책으로 인종간 혼인 금지, 집단 지구법, 인종별 시설 분리법 등 여러 법으로 남아공 안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의 분리 정책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남아공 안에 모든 시설들 에는 백인과 백인이 아닌 인종으로 구 분되어 사용 하도록 되었고, 백인 지역을 원주민들이 지나갈 때에는 여러 종류의 허가증을 만들어 다니도 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공용 화장실 조차 백인과 백 인이 아닌 인종으로 구분 하였고, 교회 역시 백인 교 회와 백인이 아닌교회로 나뉘어서 심지어 한 교단안 에 총회가 백인 총회, 흑인 총회로 나뉘어 있었습니 다.

특히 이런 과정속에 명예 백인 (Honoray Whites) 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백인들과 다른 인종 들 에게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 한다는 의미에서의 호칭입 니다. 대외관계가 고립 되어 있는 남 아공이 외교수립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 적 동반자로서 관계 를 위하여 중국인과 일본인에게 부여한 호칭입니다.

2. 교회 혹은 선교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22년전 남아공에 선교사로 처음 와서 현장에 들어 갔을 때에 느 낌을 잊을수 없습니다. 선교사란 이름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원주민 과 교제를 나눌때에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는 이해하기 힘들 었습니다. 선교사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선교사들이 식민주의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선교사란 한 국인이 아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식민주의의 또다른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시행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앞장 세워 하였기에 이미 교회에 선교 에도 씻 을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흑인들은 저주 받은 함의 자손이다." 고 주장하며 아파르트헤이트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원주민 목회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차별이 있었던 사회 입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던 사회 입니다. 차라리 미국 처럼 모두가 섞여서 새로운 가치관과 국가 관으로 살아간다면 쉬웠을 것인데, 무지개 처럼 각자의 색을 가 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만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아공의 분열과 차별이 없어지도록 기 도해 주십시오.

3. 지금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없습니까?

: 25년이 지난 지금 아파르트헤이트 는 종식된 정책이지만 이정책의 밑 바탕에 있는 백인우월주의 까지 종식 하지는 못 했습니다. 원드롭 룰(One-drop rule) 이란 말은 피 한방울 이라도 유색인종의 피가 섞이면 백인이 아니다 라는 백인우 월 주의적인 말입니다. 이미 역사는 흘러서 더이상 아프르트 헤이트 정책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 정책을 실행 시켰던 정신 은 아직 살아 있어서 사회 이곳 저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차별 현상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백인 들을 차별하는 원주민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소수의 유색인종은 과거나 현재나 차별속에 있습니다. 차별의 주최 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미 정책은 폐지 되었지만 밑 바탕 의 사상 이었던 백인우월 주의로 아직 남아공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별이 있는데 빈부의 차별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살수 있고, 즐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니(GINI)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 다. 이것은 빈부 격차를 말하는 것 입니다. 미국 정보기구인 CIA 의 "The World Fact Book" 에 보면 남아공이 빈부격차 2위의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불 균형이 심각하다는 말 입니다. 실 제로 남아공의 자유가 있지만 소득 으로 이미 사회가 나누어져 있습니 다. 식민지 정책 아래에서 이미 백

인은 모든 자원과 사회적 기반을 가졌고, 일부 흑인들 만이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고 기회를 잡아서 귀족화 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없지만 실질적인 차별과 분 리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리로 남아공은 인근 나라보다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미국 사회에 글라스 씰링- 유리천장 (Glass-Ceiling) 이라고 해서 유색인종이 상류 사회에 진입 할수 없 는 상황을 표현하는데 남아공이 그러합니 다. 바로 이웃에 있어서 보이는데 도무지 그 곳으로 갈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 절망감 이 사회 전반을 덮고 있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는 "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황금을 빼앗아 갔다." 고 말하 기도 합니다. 초창기 백인들이 내륙으로 들어 오면서 1838년 12 월 16일 원주민 줄루족 과 전쟁을 하며 하나님께 맹세 합니다. 내 용은 축약 하자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 케 해주시 면 이날을 안식인과 같이 기억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 미 세속화 되고 아프리카 전통 신앙과 혼합된 변형된 아프리카 기 독교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지 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과는 다를수 있다는 생 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에게 지 혜가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